

# GROVERSE NEWS

2025.3.27(목) 그로버스 컨설팅 해외뉴스분석팀

## [주요 내용]

- 탄핵·수사 관련
  -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다리며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불안감 고조 (SCMP)
  -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고려되는 헌법적 쟁점들 (Diplomat)
- 이재명 대표 항소심
  - 이재명 대표 삼무죄 차기 대선 출마 길 열려 (WT/Reuters/요미우리/닛케이)
  -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(Bloomberg/AFP/AP)
- 북한
  - 미국가정보국장북한“언제든핵실험준비” (Newsweek)
  - 미북한은핵포기하지않을것이며핵실험준비되어있어” (NK News)
- 외교·안보
  - 한국 서해서 중국 감시하는 대형 부유물 설치 (Reuters)
  - 논문 거래의 기술이 세력화 축을 만나다 (Bloomberg)
- 교역·경제
  - 트럼프 대통령 자동차 관세 부과 발표 예정 (NYT)
  - 아문디자산운용 “韓 증시, 공매도투자자유입으로상승세전망” (Bloomberg)
- 에너지 산업
  - 원자력발전량증가로한국석탄·LNG 수입감소(Reuters)
  - 다층적이며다극성을띠는에너지(National Interest)
- 진실화해위 조사
  - 세계최대아기수출국한국, 입양에서불법행위인정(NYT)
  - 韓 진실화해위해외입양사기와학대는정부책임” (AP/WSJ/Reuters)
- 산불재난
  - 역대 최악 산불에 맞서는 한국...위기 대응 체계에 대한 우려 제기 (NYT/WT)
  - 인명 피해 및 천년 고찰 전소 (WP/AP/CNN/Bloomberg/Reuters/UPI/Forbes)
  - 한덕수권한대행, 산불진화에'전국적총력대응' 약속(AFP)
- 스포츠
  - 손흥민, 월드컵홈경기무승부후열악한경기장에불만(Reuters)
  - 독자 활동에 제동 건 법원 결정에 충격받은 뉴진스 인터뷰 (BBC)

## 탄핵·수사 관련

### <SCMP 3.26>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다리는 가운데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불안감 고조 (Park Chan-kyong)

-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는 가운데, 한국은 대규모 시위 증가, 분열된 정치 파벌에 직면
- 현재의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
- 정석구 전 <한겨레신문> 편집인은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면 한국은 심각한 민심 동요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고 봄
-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것이란 당초 기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 이후 줄어들었다고 진단
- 지병근 조선대 교수는 계엄령 사태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여전히 높다며 윤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해야하라는 엄청난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

### <Diplomat 3.26>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고려되고 있는 헌법적 쟁점들 (Taehyeon Kim 미 변호사)

-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례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. 그러나 윤 대통령 사안은 본질적으로 이전 사례들과는 다름
- 가장 큰 차이는 사안의 중대성. 12월 3일 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 남용이자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행위
- 절차적, 실체적 측면 모두에서 헌법을 위반한 것이며, 이는 단순한 법률 위반을 넘어 헌정 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위헌 행위로, 파면이 정당
- 윤 대통령의 탄핵과 계엄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가를 중대한 헌법 문제이며, 탄핵 기각과 계엄령 정당화는 민주주의 퇴보와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

## 이 대표 항소심

### <WT 3.27 서울발>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무죄, 차기 대선 출마 길 열려 (Andrew Salmon)

-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. 이로써 이 대표는 차기 대선 도전을 위한 장애물 하나를 넘었음

- 이는 좌파 성향 이 대표의 타격에도 거뜰한 정치력이 여전히 견고함을 보여주는 최근의 신호. 이 대표는 “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판결한 재판부에 감사”를 표함
-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대선이 열리게 됨.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이 대표는 대북 관여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지지하며, 윤 대통령이 추진한 한일 관계 개선에 반감이 큼. 그의 노선이 트럼프 행정부와 맞을지는 불확실함

**<Reuters 3.26 서울발> 이재명 대표, 항소심 승리로 대선 난관 돌파 (Joyce Lee & Hyunsu Yim)**

- 서울고법이 26일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라고 판결. 그의 대선 출마를 막아왔던 장벽이 제거된 것
-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,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상고 계획을 밝힘

**<요미우리 3.27 서울발> 한국 야당의 이 대표는 2심 판결 역전 무죄로 기세 차기 대통령 향해 전진, 여당은 전략 재고 불가피**

- 한국 제1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일 항소심에서 역전 무죄를 쟁취해 차기 대통령 자리에 다가섰음
- 여당 국민의힘에 충격이 확산되고 있으며,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실시될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전략 재검토가 불가피함
- 이 대표는 그동안 대일 강경 발언으로 알려졌다으며, 한일 관계를 개선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온 한편, 북한과는 ‘대화 중시’의 자세를 보여 왔음

**<닛케이 3.27 서울발> 한국 야당 이재명 대표 고법 판결 역전 무죄 대선 출마에 순풍,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좌우**

-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, 서울고법은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
- 이 대표가 차기 대선 유력 후보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데 호재가 됨.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면 조기 대선은 실시되지 않음

**<Bloomberg 3.26> 이재명 대표,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(Soo-Hyang Choi)**

- 서울고법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
- 이는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며, 이 대표의 향후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. 이 판결은 이미 혼란스러운 한국 정치 상황에 또 변수를 추가

**<AFP 3.26 서울발> 이재명 대표,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**

-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힘
- 향후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청신호가 켜진 것. 이 대표는 재판 후 법원 앞에서 정부가 자신을 기소하느라 “국가 역량이 소진”됐다고 비난

\* <AP>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**살** 유죄 판결 뒤집혀

**북한**

**<Newsweek 3.26> 미 국가정보국장 “북한, 언제든지 핵실험 준비 ” (Micah McCartney)**

-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25일 러-우 전쟁 이후 북한이 군사 .외교적으로 더 강력한 입지를 가질 것이며, 핵실험 할 준비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
- 개버드 국장은 상원 정보위 모두발언 자료에서 북한이 단기간 내 언제든지 핵실험 할 준비가 되어 있고,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ICBM 성능을 과시하고 있다고 설명
- 개버드 국장은 또한 김정은이 정권 방어와 핵보유국 인정, 영향력 강화를 위해 미국과 그 동맹국을 겨냥한 전략적, 재래식 군사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

**<NK News 3.26> 미국 북한은 핵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핵실험 준비되어 있어” (Jooheon Kim & Shreyas Reddy)**

- 미 국가정보국(DNI)은 2025년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“전략적 및 재래식 군사 능력”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경고
- 미 정보기관이 북한의 핵 야망에 흔들림이 없다고 인정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이 북한을 “핵보유국”으로 설명하는 여러 성명에 이은 것

**외교 · 안보**

**<Reuters 3.26 서울발> 한국서해서 중국 감시하는 대형부유물 설치 (Josh Smith & Jack Kim & Joyce Lee & Ryan Woo)**

-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6일 중국이 설치한 무단 철골 구조물에 대한 비례 조치로 대형부유물을 설치했다고 밝혔음
- 지난 2월 중국이 설치한 이 구조물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한국 조사선이 중국 해경 선박과 민간인을 태운 고무보트에 의해 저지당했음

- 중국은 이 구조물이 어업 양식용이라고 주장하지만,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려 한다는 우려로 한국에서 경각심이 고조됨

**<Bloomberg 3.26> [ 논평] 거래의 기술이 4세력의 축을 만나다 (Andreas Kluth)**

- 트럼프는 단기적인 거래와 보여주기 행사를 무모히 추구하면서,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전략적 난제 중 하나를 뜻밖의 횡재에 의해 해결할 가능성이 있음
- 그 난제는 중국, 러시아, 북한, 이란 사이에 반미 '축' 형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. 이 새로운 축의 징후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발현됨
- 트럼프가 상황을 유동적으로 만들어 미국에 적대적인 블록의 형성을 막는다면 좋은 결과이겠지만, 문제는 이를 위한 대가
- 새로운 긴장 완화는 미국이 '팍스 아메리카나'(Pax Americana: 미국 주도 세계 평화체제)의 수호자라는 전통적인 역할을 포기한다는 이해에 기반하게 될 것
- 강대국이 소국들을 보호하도록 제약했던 규정과 규범의 체계가 아닌 새로운 대담한 세계에서 중국, 러시아, 미국은 영역권의 피라미드를 집어삼키게 될 것

**교역·경제**

**<NYT 3.27> 트럼프 대통령, 자동차 관세 부과 발표 예정 (Ana Swanson & Jack Ewing)**

-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26일(현지 시각) 오후 자동차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
- 관세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지는 아직 불확실. 이번 조치는 특히 유럽, 일본, 한국 등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지역과의 무역 갈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음

**<Bloomberg 3.26> 프랑스 아문디자산운용 “한국 증시, 공매도 투자자 유입으로 상승세 보일 전망” (Sangmi Cha)**

- 프랑스 아문디자산운용은 다음 주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는 한국 증시를 겨냥하고 있는 공매도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투자에 따른 역효과를 경고
- 빈센트 모르티에 아문디 최고투자책임자(CIO)는 정치, 경제 불확실성 등 부정적인 요소가 이미 가격에 반영돼 한국 증시를 노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
- 이어 공매도 금지 해제를 MSCI(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) 선진국 지수 편입에 기여할 수 있는 정상화를 위한 한 걸음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

## 에너지 산업

### <Reuters 3.26 리틀턴발> 원자력 발전량 증가로 한국 석탄 ·LNG 수입 감소 (Gavin Maguire)

- 역대 최대 수준의 원자력 발전으로 한국은 올해 열탄과 LNG 수입을 수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- 역사적으로 한국은 열탄과 LNG 수입에서 상위 4위권이었지만, 올해 1분기 국내 원자력 발전량 증가에 힘입어 두 연료의 합산 수입량이 지난해 대비 20% 감소
- 한국 내에서 원자력의 위상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, 추가로 4개의 원자로가 건설 중임

### <National Interest 3.26> 다층적이며 다극성을 띠는 에너지: 한미 관계의 새로운 급진전? (임은정 공주대 교수)

- 오늘날의 전 세계 에너지 질서는 다층적일 뿐만 아니라 다극성을 띠고 있음. 각 에너지원은 서로 다른 지정학적 역학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
- 한국과 같이 자원이 부족하고 제조업 중심 국가의 경우 에너지 안보가 가장 중요. 핵심적인 문제는 공급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것
- 재생 에너지와 핵에너지를 적절히 조합해 사용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뿐만 아니라 녹색 기술의 산업 개발을 위해서도 필수적
- 한미는 이미 군사, 산업, 기술 협력을 통해 깊이 얽혀 있음. 트럼프 대통령이 화석 연료 사용을 강조하면서, 이 분야에서 양국 에너지 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음

## 진실화해위 조사

### <NYT 3.26 서울발> 세계 최대 '아기 수출국' 한국, 입양에서 불법행위 인정 (Choe Sang-Hun)

- 한국은 26일 수십 년 전 해외로 아이들을 입양 보내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입양 가능성을 높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
- 아이들이 "짐짝"처럼 보내진 것을 규명한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해외 입양인들이 힘겹게 얻은 승리
- 한국은 세계 최대 아동 수출국으로, 1953년 한국전쟁 이후 약 20만 명의 한국 아동이 미국과 유럽 등 해외로 입양됨

## <AP 3.26 서울발> 韓 진실화해위 “해외입양 사기와 학대는 정부 책임”

(Kim Tong-Hyung)

- 진실화해위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(진실화해위)는 한국 정부가 사기와 학대가 만연한 해외 입양 프로그램 운영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림
- 이는 복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서 추진됐으며, 입양 대상 아동의 배경과 신원을 종종 조작했던 민간 기관에 의해 가능했음
- 진실화해위는 한국에서 유럽, 미국, 호주 등으로 입양된 367명이 신청했으며, 가장 종합적인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
- 진실화해위는 국가의 공식 사과,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 여부 실태조사 및 후속 대책 마련, 신원정보 조작 등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 등을 권고

\* <WSJ> 진실화해위 한국 해외 입양 프로그램, 아동의 권리 침해 ”

<Reuters> 진실화해위, “한국, 해외 입양 과정서 인권침해 저질렀다”

<BBC> 韓, 입양 위해 아동 ‘대량 수출’ 인정

## 산불 재난

### <NYT 3.26> 역대 최악에 속하는 산불에 맞서는 한국 (Jin Yu Young)

- 한국의 소방 인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역대 "최악"으로 평가했으며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심해진 산불에 맞서고 있음
- 최소 24명이 사망했으며 26일 산불 현장에서 추락한 진화 헬기의 조종사 1명이 포함된다고, 당국이 발표
- 건물 209개소가 화염과 연기로 파괴되었으며 고운사 등 천년 고찰 2곳도 포함. 국가유산청은 앞서 고운사의 일부 유물을 이송

### <WT 3.27 서울발> 거세계 번지는 산불에 위협받는 세계문화유산 ‘하회마을’

(Andrew Salmon)

- 한국의 관심이 대통령 탄핵 위기에서 응급 상황으로 전환 중. 산불로 24명이 사망했고 세계문화유산 ‘하회마을’이 위협에 처함
- 산불 사태는 한국의 위기 대응 체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. 중앙 정부는 위기 대응에 강하나, 지역 차원의 대응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
- 서울 주재 영국 기자 마이클 브린은 재난이 발생하면 기관 간 협력 의지나 권한이 없으며, 사안을 잘 모르는 대통령이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

- 양선묵 전 민주당 국제협력위원장은 엘리트는 존중받으나 현장 대응 인력은 그렇지 못함을 지적하면서도 “이젠 재난 시 국민은 최고위층을 본다”며 변화를 부각
- 당국은 여전히 산불 진압에 총력 대응 중. 안동 하회마을뿐만 아니라, 14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 다른 두 곳도 이번 산불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

**<WP 3.26 서울발> 한국 남동부에서 맹위 떨치는 산불로 최소 18명 사망 (Andrew Jeong)**

-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이 한국 남동부에 피해를 주며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4만 3천 에이커 이상이 전소됐다고, 당국자들이 26일 발표
-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,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다고 밝힘

**<AP 3.26 서울발> 수백 년 된 사찰 고운사, 전례 없는 대형 산불로 전소 (Hyung-jin Kim)**

- 한국 남부 지역을 휩쓴 전례 없는 대형 산불로 고운사의 전각 대부분이 전소되 고국가 보물로 지정된 3점 중 연수전과 가운데루 등 2점이 전소
- 서기 681년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운사가 불길에 휩싸이면서 전체 건물 30동 중 약 20동이 전소했다고 국가유산청이 26일 밝혔음

\* <CNN> ‘전례 없는’ 산불로 최소 24명 사망하고 천년 고찰 전소

<Bloomberg> 산불에 맞서는 가운데 사망자 18명으로 증가

<AP> 남부 지역 휩쓴 산불로 24명 이상 사망, 수천 명 대피

<Reuters> 산불로 최소 24명 사망...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조종사 사망

<UPI> ‘역대 최악’의 산불로 최소 24명 사망 ... 수천 명 이재민 발생

<Forbes> 최악의 산불과 싸우는 한국, 최소 24명 사망, 2만7천 명 대피

<BBC> 韓 역대 최악 산불에 최소 24명 사망

**<AFP 3.26 서울발> 한덕수 권한대행, 산불 진화에 전국적 총력 대응' 약속**

-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산불로 18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자, 진화에 “전국적 총력 대응”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힘
- 한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가 산불 위기 단계를 전국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고 덧붙임

**<Reuters 3.26 서울시드니발> 손흥민, 월드컵 홈경기 무승부 후 열악한 경기장에 불만 (Nick Mulvenney)**

- 한국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은 열악한 경기장 상태가 월드컵 예선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토로. 한국은 3월 A매치에서 오만, 요르단과 각각 1-1로 무승부
- 손흥민은 경기장 상태 문제로 서울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던 경기가 고양과 수원 등으로 옮겨졌지만, 이곳들의 잔디 상태도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
- 그는 “원정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내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”며, 작은 요소들이 승점 차이를 만든다며,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

**<BBC 3.26 서울싱가포르발 > K팝계 뒤흔든 소송 : BBC 인터뷰서 목소리 낸 이유 밝힌 뉴진스 (Juna Moon & Fan Wang)**

- 소속사 어도어가 낸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린 뉴진스(NJZ) 멤버들은 법원 결정을 듣고 모두가 충격을 받았었다고 밝힘
-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, 직장 내 괴롭힘과 신뢰 관계 훼손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